

종교교사의 자질과 종교교육*

양 은 웅
원광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과 종교교사의 자질문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지하듯 학교교육에 있어서 종교교과는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공립학교에서 시행된 예는 전혀 없고, 사립학교 그것도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이른바 종립(宗立)학교에 한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현재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64개 교과목 가운데 종교교과가 유일하다. 종교는 구세제인(救世濟人)이 본령이므로 인류의 역사 문화와 함께 그 생명을 같이 해왔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에 긴요한 과목이다. 그러나 종립학교에 한정된 그것은 건학이념인 특정 종교이념의 선포가 중심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교교과를 종립학교에 미루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종교교육을 요구하고, 종립학교는 교육당국에 대해 사학의 자율성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공과목의 교사자격기준 개발과 평가」 관련 과제는 종교교과의 새로운 운영의 틀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과제를 기반으로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가능하게 되며 균형잡힌 교과운영이 이루어질 때 교과서의 규격화 등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사의 자질문제이다. 이는 양성과정·임용·재교육 그리고 평가 등 전과정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종교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부분도 있지만 종교교사에게만 요구되는 특수한 요인도 있다. 이를 전제로 종교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기해보면 첫째 교과교육의 전문가로서 역할, 둘째 학생 생활지도 및 인격적인 상담자로서 역할, 셋째 종교적 품성으로 동료교사들에게 인격적인 상호작용의 역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핵심 주제어 : 종교교육, 종립학교, 종교교사, 교사자질, 종교교과

* 이 논문은 2008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 언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교과로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행하고 있는 주체는 모두가 사립학교이며, 공립학교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 현재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64개 교과목 가운데 중립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은 종교교과가 유일하다.

이는 종교가 갖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는 구세제인(救世濟人)을 본령으로 하므로, 그 시원을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따라서 인류문화의 보고라는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종교는 특수한 교리사상을 구세이념으로 하는 교단조직이 있고, 이는 특정한 가치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과 공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데 종래의 종교교육은 대부분 중립학교에서 시행함으로써 종교를 인류의 양식이나 문화로 접근하기 보다는 설립주체의 교의나 교양을 교시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흔히 설립재단인 이념인 특정종교를 포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학교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형태가 되고, 삶의 정체성 확립이나 건전한 교양과 종교문화 이해 등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자유 등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이해되기 쉬웠다. 따라서 종교교육의 기여도가 모호해질 뿐 아니라 그것을 폄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의 삶이 지구촌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다종교사회 내지 다문화사회를 형성함으로써 종교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불가피한 양상이다. 적어도 각급 학교 건학이념의 선포보다는 종교교육을 통한 인격도야, 종교문화의 이해를 통한 건전한 교양인 양성, 이웃종교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선의 축대구축 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진홍 교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종교교육과정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전망한 바 있다.

<1> 제7차에서는 현대 인류의 문명이 봉착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종교적 가치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면서 아울러 종교간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파국을 피하기 위하여 종교문화 전체에 대한 조망을 단순한 개개 종교의 ‘전통과 사상’을 소개하는 일을 넘어 다름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그렇다면 이미 종교교육은 종단학교에 국한 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각급 학교에서 공히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과목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어느 학교에서나 종교과목을 일반교양선택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제6차 이후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는 ‘종교’를 가르치는 종교과목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종교과목이 정확하게 된다면 그 교육과정은 종단학교에 국한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종교와 정치, 종교와 교육간의 마찰이나 갈등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시민들이 종교적 가치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성숙하게 될 것이고, 종교문화 자체도 더 건강하게 선양될 수 있을 것이다.¹⁾

학교에서 있어서 종교교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 길은 현행의 종립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 까지 확대 전개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특정종교의 역사나 교리에 대한 교양이 아니라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면 종립학교의 교육이념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건전한 인격은 그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상징으로 학교교육과 상호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종교교육이 갖는 특수성에 유의하면서 학교교육의 구성요소인 교사와 학생과 교육내용 중에서 특히 종교교사의 자질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거기에는 양성과정과 선발, 그리고 재교육 및 평가 등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급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교사는 신앙을 전제한 분야이기 때문에 교사자신의 자세에 따라 교육의 질에는 커다란 차이를 미치게 된다. 제도와 이념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제도도 갖추어야 하겠지만 결국의 종교자체를 보는 균형 잡힌 안목이 더욱 요망된다.

II.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

종교교과가 공립학교에서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그 정체성이 아직 분명하게 갖추어지지 않다는 의미이다. <헌법>에서는 종교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²⁾

이는 명시적으로 국민생활에 있어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 ‘종교의 자유’와 관련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학교교육은 평등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종교교과는 종립학교의 이념과 개인의 입장이 상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정종교의 교의가 아니라 종교문화 일반을 교육하는 체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운영할 제도적 장치 등이 확실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한국

1)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39쪽.

2) <헌법> 11조 및 20조.

종교교육학회가 종교교과에 대해 받은 <전공과목의 교사자격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평가연구>라는 연구용역은 이러한 과제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그 ‘연구의 필요성’에서 밝히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 <3> 1. 과목별(64개 과목) 평가영역, 평가목표, 평가내용 요소 상세화의 필요성
 2. 정부의 교육 정책의 신뢰도 제고
 3. 임용 고시에 새롭게 도입되는 전형 요소들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확보의 필요성
 4. 출제 문항 유출 시비, 특정 대학 출신자의 유·불리 등 국가시험의 타당성·공정성·신뢰성 확보 및 수험생의 각종 민원 및 행정 소송 예방을 위한 과목별 평가영역, 목표, 내용 요소 상세화(1, 2차 시험 출제용)를 위한 연구 및 의견 수렴 과정과 합의된 결과에 대한 공시 필요³⁾

결국 종교교과가 64개 교과목과 같은 조건을 유지한다는 것은 종래의 형태에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요소를 충족하면 종교교육은 보편적 객관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종립학교가 아니라 일반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서 종교교과를 운영한다는 것은 특수종교의 입장을 벗어나게 되며, 이른바 ‘종교’가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즉 ‘종교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는 객관화 보편화가 담보된다.

그러면 이러한 체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아마 현행의 종립학교에서 종래의 방법을 바꾸어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종교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종래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건학이념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운영해온 점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교육을 포교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해왔으나 갑자기 그 방법을 바꾸기 어려울지 모른다. 종립학교의 건학주체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종교기관이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의 필요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교육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대부분 특정종교의 성직자라는 점이다. 종립학교의 건학주체인 특정교단에서는 성직자를 종교교사로 임명하였고, 따라서 그 교사는 종교학 일반이나 종교문화를 가르치는 대신 교단의 교의를 선포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 교사는 종교일반이나 이웃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하기 쉬운데, 이는 종교교사 양성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셋째 종교교사의 양성 및 선발이 임의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특정종교의 포교를 위해 양성된 교사를 종립학교에서 임의로 선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종교일반 내지 종교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갖기 어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도 어려운 면이 있었다. 단기간의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널리 행해졌던 점 등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공과목의 교사자격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평가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8. 1. 11) 12-13쪽.

이 그러하다.

넷째 종교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종립학교의 설립주체에 따라 사용하는 교과서가 서로 달랐다. 교과서가 다르므로 교과운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각급 학교에 따라 교육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종교교육의 운영주체에서부터 교사의 양성과 배출,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틀을 이루지 못한 채로 운영되어 왔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함께 종교교과의 교과서 검인정 방침이 구체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정종교의 교의에 대한 비중을 한정함으로써 종교일반 내지 종교문화에 대한 비중을 높였으나, 특정종교의 입장에서 행해지던 형태를 탈피하기는 어려웠다.⁴⁾ 이는 공립학교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Ⅲ. 종교교사의 자질문제

종교교육에 있어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종교교사의 자질문제는 양성과정과 선발 임용, 그리고 재교육과 평가 등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공립학교 등에서 특정종교와 관련 없이 교과가 운영된다면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교사는 「교원자격 검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 배출된다. 거기에는 교과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전제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자질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교사상은 어떤 것인가? 일찍이 중국의 철인 순자(荀子, B.C. 298?- B.C. 238?)는 스승상을 다음과 같이 이르고 있다.

<4> 스승이 될 만한 도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널리 익히는 것은 당연하다. 존엄성을 가지면서 두려워할 줄 알면 스승이 될 만하고, 늙은이가 되어서 신뢰를 받으면 스승이 될 만하며, 강설하여 뜻을 범하지 않으면 스승이 될 만하고, 정미하게 알아 논할 수 있으면 스승이 될 만하다.⁵⁾

위와 같이 널리 배워 아는 것은 당연하며, 실질적인 자격으로 거론한 바를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권위·신뢰·지도능력·수업능력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대한 현대인의 개념은 이와 같은 전통 스승상을 전승함으로써 성직자로 보는 경

4) 줄고, 「제7차 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종교교육학연구』 13,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159-161쪽 참조.

5) 「師術有四而博習不與焉. 尊嚴而憚可以爲師. 耆艾而信可以爲師. 誦說而不凌不犯可以爲師. 知微而論可以爲師」(『荀子』致士)

향이 자리하고 있다.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을 요구받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이는 인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한교육연합회에서 제정한 ‘사도헌장(師道憲章)’이다. 이는 국가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의의와 함께 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5>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1.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가 된다.
1.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1.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혁신과 교육자의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교육, 사회교육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공헌한다.⁶⁾

이러한 스승상 아래 교사의 자질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예컨대 전문성의 확보, 엄격한 자격기준, 교원윤리 및 교권확립, 자질과 지위 향상이 그것이며⁷⁾, 교육목적 수립자, 교육과정 구성자, 수업자, 생활지도자, 교육평가자, 학급경영자,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자, 직장인⁸⁾ 등의 역할이 그것이다. 그러나 종교교사는 일반교사로서 자질과 종교에 바탕한 인격체라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이 관련된다. 말하자면 교과전문가로서,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중층적 역할을 요청받기 때문이다.

종교교사의 자질을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 등에서 보면, 전술한 대로 일정한 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을 획득하고 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수업진행 등의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이 요청된다. 종교문화인으로서 개별 종교에 대한 가치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다른 교사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학적 측면과 관련해서 종교교사의 자질을 생각해 보면 객관적인 종교연구처럼 몇 단계가 요청된다. 종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종교의 신앙인이 되어야 종교를 논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자기 교단의 울을 벗어나 종교의 참뜻, 신앙의 참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종교와 신앙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자기 신앙으로 귀의할 때 비로소 객관적인 종교차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종교일반에 대한 덕목을 살리기 보다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학교 설립주체로부터 옹호를 받기 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운영이 특히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종교교의를 전제로 하여 모집하는 형태가 아니며, 사학이

6) 대한교육연합회편, 『사도헌장 및 사도강령』 (동아서적, 1982), 8-9쪽.

7) 김일문, 「바람직한 교사상」 (『아동교육』10-2, 한국아동교육학회, 2001), 3쪽 참조.

8) 오천석 외편, 『현대교육총서』 13(배영사, 1971), 20-22쪽 참조.

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일단의 운영비를 조달받고 있다.

또한 신학에 있어서 「종교신학」⁹⁾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전개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 있어서는 교육환경도 종교간의 공존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 종교교육을 담당할 종교교사에게는 이러한 가치중립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것은 종교공존의 풍토를 가리키지만 탈종교현상, 종교일탈현상을 극복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으로 이어지지 때문이다.

IV. 결 어

오늘날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립 중등학교에 있어서도 특정종교와 관련 없는 종교교육이 행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특정종교와 관련 없이 종교교육이 행해진다면 공립학교에서 종교교과가 운영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가능한 체제 내지 제도적 장치, 교과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가치중립적으로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함께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종교간의 이해와 협력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종교 다문화사회인 우리사회에 있어서 종교간의 갈등관계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 고대 마우리아왕조의 아쇼카왕(Aśoka, 재위 B.C. 268경- B.C. 232경)은 칙문(勅文)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6>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자 하거든 남의 종교를 먼저 찬탄하라. 남의 종교를 선전하면 자신의 종교가 그만큼 넉넉한 종교가 되리니, 남의 종교를 찬탄하고 참여하라!」¹⁰⁾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인간의 지능도 발달할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선언문을 보면 과연 그러한가를 반성하게 된다. 2천 수 백 년이 지난 오늘의 인류가 아쇼카왕 당대의 사교와 지성에 미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종교교사의 자질과 관련한 몇 가지 입장을 종합 정리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종교교육학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리라 본다. 종교교육의 입장은 이들 모든 면을 망라 조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틀에 맞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9) 종교신학이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신학의 차원에서 종교일반 내지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협력 등을 다루는 분야를 이르는 용어이다.

10) 아쇼카왕 <마애칙문>.

그리고 이러한 교사양성 및 선발 등의 활동무대가 열리면 객관적 보편적인 종교교과 교재를 학계에서 편집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계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쓰여진 교과서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종교교과가 두루 운영되는데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荀子』

『헌법』

대한교육연합회편, 『사도헌장 및 사도강령』, 동아서적, 1982

강돈구,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김종철, 『최신교사론』, 교육과학사, 1995.

오천석 외편, 『현대교육총서』 13, 서울: 배영사, 1971

이병진, 『현장교사론』, 서울: 양서원, 1998.

김일문, 「바람직한 교사상」 (『아동교육』 10-2, 한국아동교육학회, 2001)

양은용, 「제7차 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공과목의 교사자격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평가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8

원고접수: 2008년 4월 20일 1차심사: 5월 11일 게재승인일: 6월 1일

연구자 소개: 양은용

① 전공: 불교학 / 소속: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종교학, 한국불교

③ 주요논저: 「제7차 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한국학여명기의 인물과 학문』(편) 외.

④ E-mail: ilsan@wku.ac.kr

Abstract**Quality of Religious teacher and religious education**

Yang, Eun-Yong

Wonkwang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religious education and quality matter of religious teacher in institutional school education. It is widely known that course of religion in school education was limitedly performed. Religious education was never enforced in public schools, was only operated at some private schools which were founded by religious organization. Among 64 subjects taught at school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is only phenomena until present time 2008. Religion, as main aim of salvation of world and people, has been kept up with history and culture of human being. Therefore, religious education become a important subject for formation of view of value to live a life as a human being. The limitation of religious education could brought a problem that propaganda of its religious thought takes center of each religious organization's school. Government shifting the responsibility of religious education to those schools and asking objective and universal religious education, and those religious organization's schools requesting autonomy to government. In this circumstances, a related project of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ubject teacher's qualification standard" which is prepared by Korea Institution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is expected to be an occasion to seek new frame of administration for the subject of religion. Based on this project, public school can be able to run religious education, balanced subject administration can lead the standardizations of text book and so on. Among them, most important factor is quality of religious teacher. It dominates whole processes of training, appointment, re-education, evaluation and so on. Among the roles of religious teacher, some parts are similarly required factors to ordinary teacher as well, however there are special requirements to religious teacher only. Concerning on the required roles to religious teacher, three factors should be emphasized; firstly, role of specialist of subject education, secondly, role of guide for school life and personality counselor, thirdly, role of reciprocal activist with religious character among colleague teachers, and so on.

Key words : religious education, schools established by religion, religious teacher, quality of teacher, subject of religion.